

‘미향 광주’ 대표음식 한자리에 모인다

오늘 DJ센터서 ‘음식 페스티벌’ 9가지 음식 출품 대표음식 선정 송정역·버스터미널 입점 추진 시연관·시식관·체험관도 운영

미향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 대표음식’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무대는 광주시가 개최하는 ‘광주 대표음식 페스티벌’이다. 페스티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음식은 ‘광주 대표음식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의 광주 대표음식으로 선정되며, 장기적으로는 광주시 지원 아래 광주 송정역·버스터미널(유스퀘어) 상가 입점

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019광주대표음식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주 대표음식 선정위원회 김기태 위원장, 음식 전문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다. 광주 대표음식 페스티벌은 시민과 전문가 100인 토론회와 주제관, 시연관, 시식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광주음식 전시관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국민 여론조사와 광주음식 공모로 추천된 음식과 스토리 우수작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가 후보군으로 선정한 9가지 음식이 경쟁한다. 후보음식은 광주 상추튀김, 오리탕, 한

식, 송정떡갈비, 주먹밥, 팔갈국수, 육전, 무등산보리밥, 애호박찌개다. 100인 토론회에서 후보에 오른 9가지 음식을 놓고 시식, 조별 토론, 평가표 작성을 한다. 상징성과 차별성, 대중성 등 3개 분야별 적합 음식 각 3가지를 우선 선정한다. 주제관에서는 ‘맛있는 광주’라는 별칭으로 9가지 음식 유래, 광주만이 갖는 독특한 이야기 등을 웹툰으로 제작해 전시하고, 광주 음식 관련 영상도 선보인다. ‘광주음식을 부탁해’는 주제로 4명의 청년 셰프가 후보음식 4가지 조리 시연을 하고, 전문가 진행 아래 시민들이 시연음식에 대한 추억, 의미를 자유롭게 얘기한다. 광주 대표음식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이 후보에 오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도록 시식관도 운영한다. 시민들은 전시

관 관람시 배부된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제출한 평가표 가운데 추첨을 통해 30명을 뽑아 3만원 짜리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한다. 광주 대표음식 선정위원회는 음식 전문가 등이 참여한 100인 토론회 결과, 전시관 관람객 평가의견, 공모전 결과 등을 취합해 다음주 광주 대표음식을 선정, 발표한다. 김일용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2019광주대표음식 페스티벌은 시민들과 함께 광주 대표음식을 뽑고, 시민들의 관심과 광주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주 음식산업을 일으켜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광주 송정역이나 버스터미널에 광주 대표음식을 입점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자원순환시행계획 시민이 만든다

시민실천협의체 토론회 연도별 목표 설정·의견 수렴

광주시는 9일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련한 ‘시민실천협의체 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마을활동가, 요식업 관계자, 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광주에서 수립하고 있는 자원순환시행계획(2018년~2022년)의 연도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세부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광주시 정책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한다. 특히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역 및 국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광주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주도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면서 “자원순환사회 구축은 시민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형 계획을 통해 광주시 자원순환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순환이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형간염 환자 증가...광주시 관리 강화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A형간염 감시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시 및 관리 강화는 질병관리본부 및 5개 자치구 보건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A질병관리본부 감시 결과 지난 1월부터 4월28일까지 A형간염 신고 건수는

전국 35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67명보다 237% 증가했다. 특히 30~40대 신고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구민 기념할 ‘의미 있는 날’ 공모

광주시 북구가 북구민이 함께 기념할 북구 ‘의미 있는 날’을 공모한다. 북구는 “오는 13일까지 북구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고유 자원 등과 연계해 구민 모두가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의미 있는 날’의 날짜

와 이유를 국민신문고에 제안 등록하거나 북구청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6월 중 심사에 공모 입상자를 선정한다. 문의 062-410-6059. /정병호 기자 jusbh@

세계수영대회 시민서포터즈 서구 2000명 15일까지 교육

광주시 서구가 여는 7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손바닥이 준비에 나선다. 서구는 “수영선수권대회기간 활동할 시민 서포터즈 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서구는 수영대회 지원을 위해 시민 서포터즈 2000여명을 접수받아 선발 했으며, 오는 15일까지 5회에 걸쳐 교육을 운영한다. 지난 3일과 8일 700여명의 서포터즈가 교육에 참여했으며, 9일·13일·15일에는 1200명을 대상으로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 자원봉사자 90여명 대구 방문 달빛동맹협약

광주 자원봉사자 90여 명이 8일 대구를 방문해 영남 자원봉사자 간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자원봉사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은 정기적인 상호방문 교류를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시민의 후호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민간차원의 교류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보공유 ▲봉사활동 연계 ▲협력사업 추진 ▲재난재해 시 공동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달빛동맹 협약식에 이어 달성도 성마을, 비슬산 대견사 탐방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100대 명품강소기업 육성’ 참가 기업 모집

자금·컨설팅 등 각종 지원 총 30개사...31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지역 유망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100대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2014년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본사와 주요 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으로 총 30개사다.

이번 모집은 현재 제3기 명품강소기업 27개사의 지정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재지정 여부와 함께 재지정 포가탈락 기업 결원분을 채우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 조건은 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 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명품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광주시 자금 지원, 기업인단 컨설팅, 성장전략 마련, 해외마케팅 등 기업중심 맞춤형 지원과 함께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기업성장사다리를 통해 단계별 성장전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기업육성과(062-613-387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8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100개사를 명품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자금지원 및 종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지식스타기업 15개사, 글로벌강소기업 23개사, 월드클래스300 6개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남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지원

광주시 남구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은 남구청에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개방 화장실로 지정돼 있거나, 최소 3년 이상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는 조건에 한하며, 남구는 심사를 거쳐 2~3곳의 화장실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화장실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50%까지 지원되

며,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 신청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50%보다 커질 수 있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자부담 비용을 납부하지 경우, 3년간 개방 화장실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취소 및 비용 환수가 추진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을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만원
- 급매 - 7500만원(일시불)
- 문의. 010-6834-7400